교육·학습을 위한 AI 활용

오늘 본 영어 글로 단어·문법 숙제를 만듭니다

수업에서 본 문장과 숙제가 달라지지 않게, 그 글에서만 단어와 문법을 뽑습니다.

①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했나요?
영어 수업을 준비할 때, 오늘 본 교재로 단어·문법 숙제를 다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. 단어만 따로 뽑으면 문법 연습이 수업과 어긋났습니다.

② 어떤 AI를 어떻게 사용했나요?
교재 페이지를 찍으면 Google Gemini가 글자를 읽습니다. 읽기가 불안정하면 ChatGPT가 다시 읽습니다. 본문이 들어오면 ChatGPT가 초안을 한 번 만듭니다. 단어·짧은 뜻과, 그 글에 실제로 쓰인 문법 문제를 같이 뽑습니다. 문법을 뽑는다고 호출이 한 번 더 나가지 않습니다. 학생은 숙제와 별도로 문법 주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. 그 설명은 처음 열 때만 만들고, 같은 주제는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.

③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?
숙제를 빈 페이지에서 새로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. 수업에서 본 문장으로 단어와 문법을 같이 확인하고, 틀린 문제는 다음에 다시 만납니다.

④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?
AI 초안을 그대로 숙제로 내지 않습니다. 읽기와 뽑기는 AI가 하고, 오늘 수업에 맞는 것만 사람이 고릅니다. 문법 해설은 주제마다 미리 써 두지 않습니다. 학생이 고른 주제를 처음 볼 때만 만들고, 이후에는 그 설명을 다시 사용합니다.

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?
됩니다. 별도 시스템을 구독하지 않아도 됩니다. 오늘 수업 페이지를 찍어 Gemini나 ChatGPT에게 단어와 그 글에 쓰인 문법만 문제 초안으로 뽑게 한 뒤, 맞는 것만 골라 숙제로 주면 됩니다.

같이 첨부한 파일 — 02 오늘 본 글 · 03 그 글에서 뽑은 문법 초안과 고르기 · 04 학생이 고른 문법 설명 · 05 얼굴 없이 화면만 이어 보여 주는 영상
02~05는 같은 짧은 글의 화면 예시입니다. 실명 학생은 없습니다.

초안은 AI가 만들고, 무엇을 낼지는 사람이 고릅니다. 단어와 문법 문제는 뽑기 한 번에 나옵니다. 문법 주제 설명은 처음 한 번만 만들고, 같은 주제는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.